

김지영2 · 박민지 · 이소영 US여자오픈 티켓 확보

USGA, 대회 출전 기준 세계 50위서 75위 확대
‘US여자오픈’ 코로나19 여파로 12월 미뤄져

지난 주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생애 2번째 우승을 차지한 김지영2(24·SK네트웍스)가 올해 US여자오픈 출전권을 확보했다. US여자오픈을 주관하는 미국골프협회(USGA)는 2일(한국시간) 올해 대회 출전 자격을 확정해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로나19) 여파로 USGA는 예선 대회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세계랭킹 출전 기준을 기존 50위에서 75위로 확대했다. 기준은 전세계 주요 투어 중단 전인 3월16일자 세계랭킹이다. 이에 따라 세계랭킹 72위였던 김지영2도 US여자오픈에 나갈 수 있게 됐다. 지난해 BC카드-한경 레이디스컵에서 김지영2와 연정진

을 치르며 우승경쟁을 펼친 세계랭킹 53위 박민지(22·NH투자증권)도 마찬가지다. 이외에 많은 한국 선수들이 US여자오픈 무대를 밟을 수 있게 됐다. 이소미(54위), 안선주(58위), 조정민(64위), 이소영(65위), 김아림(70위), 박재윤(73위), 최윤정(74위) 등도 올해 US여자오픈 출전 자격을 갖췄다. 세계랭킹 기준으로 US여자오픈 출전권을 확보한 한국 선수는 총 17명이다. 또한 한국선수 중 지난 10년간 US여자오픈 우승자격으로 6명(이정은6, 박성현, 전인지, 박인비, 최

나연, 유소연), 지난 5년간 메이저 대회 우승자 자격으로 2명(NA 인스퍼레이션 고진영, 브리티시여자오픈 김민경), 2019시즌 레이스투 CME 글로벌 포인트 상위 30명 기준으로 5명(하미정, 지은희, 김효주, 김세영, 양희영), 지난해 US오픈 이후 LPGA투어 대회 우승자(장하나) 자격으로 1명 등도 US여자오픈 출전권을 확보했다. 한편 올해 US여자오픈은 6월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12월로 미뤄졌다. 지난해 US여자오픈에서는 이정은6가 우승을 차지했다.



김지영2

‘정희열 아들’ KIA 정해영, 데뷔전 1이닝 무실점

역대 21번째 고졸루키 데뷔전 승리...행운의 승리투수



KIA 고졸루키 정해영이 1일 데뷔전에서 1이닝을 실점 없이 막은 뒤 승리투수를 달성했다. KIA 타이거즈 고졸루키 정해영(19)이 데뷔전에서 승리투수의 기쁨을 누렸다. 정해영은 지난 1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0 신한

은행 SOL KBO리그 한화 이글스와 경기에서 팀이 1-3으로 뒤지던 9회초 5번째 투수로 구원등판했다. 올해 KIA 유니폼을 입은 정해영의 프로 데뷔전. 맷 윌리엄스 감독은 신인투수의 첫 등판 시점을 경기 분위기가 넘어간 부담 없는 상황으로 잡았다. 마운드에 오른 정해영은 첫 타자 정은원을 상대로 볼넷을 내주며 불안하게 출발했다. 하지만 후속타자 오선진을 3루 내야 땅볼 병살타로 이끌고 한 번에 아웃카운트 두 개를 챙겼다. 이어 한화 베제랑 타자 김태균을 3구 만에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1이닝을 무실점으로 틀어막았다. 그리고 반전이 일어났다. KIA가 9회말 공격에서 선두타자 김호령의 우전안타를 시작으로 나지범의 끝내기 좌전안타까지 이어지며

4-3, 짜릿한 뒤집기 승리를 거둔 것이다. 이에 정해영은 이날 경기 승리투수로 이름을 올렸다. 프로 데뷔전에서 승리까지 차지한 것으로 고졸루키가 데뷔전에서 승리를 따낸 것은 KBO리그 역대 21번째다. 이 중 구원등판으로만 한정하면 9번째 기록이다. KIA 구단 역사에서는 박진철(1993년), 김진우(2002년)에 이어 세 번째 기록이다. 행운이 따랐지만 스스로 1이닝을 깔끔하게 책임져 성공적인 프로 데뷔전으로 손색이 없었다. 광주제일고 출신으로 지난해 KIA 1차 지명으로 입단한 정해영은 고교 2학년때부터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해왔으며, 청소년 대표팀에도 선발돼 제12회 아시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 우승에도 기여했다. KIA에서 선수, 코치를 지낸 정희열 전 수석코치의 아들로도 유명한 정해영은

KBO리그 6월 MVP 후보 확정...결과 8일 발표

LG 정찬현 · SK 문승원 · 두산 박건우 · KT 로하스 주니어



LG트윈스 정찬현 선수

LG 트윈스 정찬현, SK 와이번스 문승원, 두산 베어스 박건우, KT 위즈 벨 로하스 주니어 등 4명이 KBO 리그 6월 MVP 후보에 올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일 KBO 리그 타이틀스폰서인 신한은행이 후원하는 2020 신한은행 SOL KBO 리그 6월 MVP 후보로 이들 4명을 최종 확정했다. 6월 MVP는 한국야구기자회 기자단 투표와 신한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신한SOL(솔)’에서 실

시하는 팬 투표를 합산한 점수로 최종 선정된다. 결과는 오는 8일 발표된다. 정찬현은 2008년 이후 12년만에 선발투수로 보직을 바꿔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6월 한달 간 3경기에 등판해 2승을 올리며 월간 다승 공동 1위에 올랐다. 특히 지난달 27일 문학 SK전에서는 9회말 1사까지 단 한 개의 안타도 내주지 않는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아쉽게 노히트노런은달

성하지 못했지만 왼뽕승을 거두며 팀의 7번째 탈출을 이끌었다. 문승원은 6월 총 5경기에 등판해 모두 퀄리티스타트(60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를 기록했다. 총 32 1/3이닝을 던지며 자책점은 단 5점에 불과, 평균자책점 1.39로 이 부문 1위에 올랐다. 탈삼진도 34개를 속아내 월간 리그 최다 탈삼진을 기록했다. 타자 중에는 박건우가 뜨거운 타격감을 뽐냈다. 6월 21경기에서 타율 0.444(81타수 36안타)를 기록했다. 6월 유일하게 4할 타율을 기록한 타자였고 이외에도 득점 공동 1위(22득점), 출루율 1위(0.484), 안타, OPS(1.114) 3위, 장타율 4위(0.630) 등 알토란 같은 활약을 펼쳤다. KT 로하스는 6월 25경기에 출장해 무려 11홈런을 쳐냈다. 현재 17홈런으로 리그 홈런 부문 단독 선두에 올라섰다. 지난달 25일 수원에서 열린 NC와의 더블헤더 2차전에서는 개인 통산 100홈런을 때려, 외국인선수 통산 8번째로 100홈런 고지에 올랐다.

“내가 왔다” 한화 새 외국인 반즈, 한국 도착

한화, 훈련 위해 마당 갖춘 단독주택 제공
한화 이글스 새 외국인선수 브랜든 반즈(34)가 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미국에 머물던 반즈는 입국 후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공항에서 발열 및 건강 상태 등 검역 검사를 받았다. 검사 후엔 방역택시를 이용해 임시 숙소가 위치한 충북 옥천으로 이동했다. 옥천에 도착한 반즈는 곧장 옥천군보건소의 선별진료소를 찾아 코로나 19(COVID-19) 검사를 받았다. 반즈는 입국 후 “한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돼 무척 흥분되고 기대된다”며 “하루 빨리 KBO리그에 데뷔해서 팀 승리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화는 반즈가 자가격리 기간 동안 훈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마당을 갖춘 단독 주택을 임대했다. 반즈는 이곳에서 2주간 생활하며 티베팅, 캐치볼, 경량 웨이트 등 개인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반즈는 우투우타 외야수로 장

타력과 타점 생산 능력이 뛰어난 선수다. 지난 2005년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6라운드 지명을 받아 2012년 8월7일 메이저리그에 데뷔해 통산 484경기에서 284안타 20홈런 타율 0.242를 기록했다. 마이너리그에서는 통산 1194경기에 출장해 1165안타, 154홈런, 타율 0.262의 성적을 남겼다. 특히 2019시즌 마이너리그 트리플A에서 30홈런을 날려 장타력을 뽐냈다. 한화는 극심한 부진을 겪던 제라드 호잉(31)을 방출하고 반즈를 영입했다.

광양시청 직장경기부 육상팀 이아영 선수 ‘금메달 영예’



광양시는 광양시청 직장경기부 육상팀 이아영 선수가 지난달 25일부터 4일간 강원도 정선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74회 전국 육상경기 선수권대회’ 겸 국가대

표 선발전 대회 400m경기에 출전해 56초85를 기록해 금메달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광양시청 직장경기부 육상팀은

이번 대회에서 12개 종목에 7명이 참가했으며, 대회 기록 결과에 따라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김재필 육상팀 감독은 “육상팀이 매년 기록이 향상되고 있어 선수 모두에게 감사하다”며 “전국 최상의 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영진 체육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훈련에 땀을 흘린 선수들이 결실을 맺는 거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청 직장경기부 육상팀은 1991년 창단해 감독과 코치 각 1명, 선수 7명 총 9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전남드래곤즈, 우즈베크 국가대표 올렉 영입



전남드래곤즈가 우즈베키스탄 국가대표팀에서 왼쪽 풀백으로 오랜 기간 활약해온 올렉 조티프(Oleg Zoteev)를 영입했다. 올렉은 2012년 22세의 나이로 우즈베키스탄 국가대표에 첫 선발되어A매치에 데뷔하였고,현재까지A매치24경기에 출장하여1득점을 기록하며 왼쪽 풀백으로 활약하고 있다.

전남은 이번 시즌 리그에서2승4무1패로6위에 랭크되어 있다. 4실점으로 최소실점을 달릴 정도로 탄탄한 수비라인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4득점으로 최소득점을 기록하며 공격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날카로운 크로스와 저돌적인 돌파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올렉은 답답한 전남의 공격 전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날카로운 왼발 킥을 갖고 있어 김현우와 더불어 왼발 킥이 필요한 세트피스 상황에서 좋은 옵션이 될 것이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경기 운영 능력 또한 기대되는 부분이다. 올렉은 경기당11km이상을 소화하는 체력을 바탕으로 빠른 공수 전환이 가능하며 적극적인 수비와 커버가 뛰어난 선수이다.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출입국 절차가 까다로워져 많은 구단들이 외국인 선수 영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남의 올렉 영입 또한 쉽지 않았다.전남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 올렉의 출국 방법을 알아보고,우여곡절 끝에2주 전 출국하여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한국에 도착 후 2주간의 자가격리기간을 잘 마친 올렉은 메디컬 테스트 통과 후 오늘 전남과 계약을 완료했다. 전남의 일원이 된 올렉은 “한국에 와서 기쁘다.예전부터K리그에 관심이 있어 경기 영상들을 찾아 봤다. 이적이 결정된 후 전남에 대해서도 자세히 찾아보게 되었고,내가 팀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생각을 하고 있다.빨리 팀에 적응하여 팀의 승격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임중용 인천 감독대행 “선수들 최선 다해...할말 없다”

인천, FA컵에서 수원FC에 승부차기 끝 패배
임중용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 행이 새 감독이 오기전까지 최대한 승점을 획득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은 1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수원FC와의 ‘2020 하나은행 FA컵’ 3라운드에서 연장까지 2-2로 비긴 뒤 펼친 승부차기에서 4-5로 졌다. 최근 리그 7연패를 비롯해 리그 9경기에서 2무7패로 부진하던 인천은 지난달 28일 임완섭 전 감독과 계약을 해지했다. 이날은 임중용 감독대행이 지휘봉을 잡았지만 또 고배를 마셨다. 경기 후 임 감독대행은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서 뛰었다. 할 말이 없다”면서 “책임은 나를 비롯한 코칭스태프가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수들이 연패를 당해 자신감이 많이 떨어

졌다. 잘 추스리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빨리 회복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차근차근 준비해 반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감독대행은 “그동안 인천에서 선수와 코치 생활을 하면서 팀이 약하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면서 “매 경기에 모든 것을 쏟아 붓고 승점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